

글로벌 소식 광장

Global Goings~on

주요국의 보건복지 정책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 자료를 선정하여 번역 정리한 글임.

Measuring the effect of the timing of first birth on wages

Herr, J. L.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2016), 29(1), pp.39-72.

지난 몇십 년 동안, 많은 연구들은 아이를 가진 여성이 아이를 가지지 않은 여성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의 관련된 한 영역은 출산 시점이 임금 측면에서의 비용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비록 연구들은 출산을 연기하는 여성이 체계적으로 더 높은 장기 임금을 가지는 것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첫 출산 시점의 인과적인 영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출산을 통제하는 여성의 능력에 의해서 복잡해진다. 기존 연구들이 첫 출산 시점과 임금 간의 상관관계에 포착된 양적 편의를 지속적으로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 연기에 대한 이익이 존재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핵심적인 한계는 첫 출산의 연령에 초점을 맞춘다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 시점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첫 아이가 출산하는 때의 여성의 커리어 시점이 적절한 측정치라는 것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첫 출산의 시점이 여성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첫 출산의 시점은 연령이 아닌 노동시장진입의 측면에서 정의한다. 따라서 첫 출산 시점이 임금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첫 출산 시점과 임금은 연령이 아닌 경험의 함수로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첫 출산 시기가 노동시장진입 이전과 이후인지에 대한 구분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연령에 기초한 추정치가 여성의 출산 연기(노동시장진입 때 아이를 가지지 않음)의 임금 측면에서의 이익을 과소 추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출산 연기의 임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다만, 이 영향은 대학 졸업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으

며, 노동시장진입 이전보다 이후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첫 출산 시점에 대한 이러한 임금 측면에서의 이익(또는 손해)이 비히스패닉 백인 여성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The accumulation of (dis)advantage:
The intersection of gender and race in
the long-term wage effect of marriage**
■ Cheng(2016), 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1(1), pp.29-56.

상당히 많은 연구들은 결혼이 남성과 여성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면 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기존 연구들을 발전시켰다. 첫째, 가장 처음의 연구들이 결혼의 영향을 시불변인 것으로 가정한 반면, 본 연구는 결혼의 임금이 미치는 영향이 생애 주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주로 결혼의 모집단의 평균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거나 몇 개의 특정한 성별 또는 인종 집단에 국한된 반면, 본 연구는 결혼의 영향에 대해 성별과 인종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1979의 자료를 분석하여, 본 연구는 결혼의 임금 프리미엄이 백인 남성과 흑인 남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결혼의 임금 프리미엄은 백인 여

성에게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감소하고, 그러나 흑인 여성에게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측정된 근로 경험은 흑인 남성의 임금 프리미엄의 상당한 부분을 설명하였으나, 백인 남성에 대해서는 조금의 설명력만을 가졌다. 이것은 백인 남성의 결혼 프리미엄에 있어 관찰되지 않는 요인들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근로 경험의 변화는 기혼인 백인 남성의 임금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기혼인 흑인 여성의 임금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흑인과 백인 가족 간의 중요한 차이를 나타낸다.

**Visiting green space is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and vitality: A cross-
sectional study in four european cities,**
Magdalena van den Berg, Mireille
van Poppel, Irene van Kamp, Sandra
Andrusaityte, Birute Balseviciene
■ Marta Cirach et al., Health & Place,
2016(38), pp.8-15.

본 논문은 녹지 공간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 활력과 관련이 있음을 분석한 실증적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저자가 논문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유럽에서는 정신적 건강이 공중 보건 우선순위라고 한다. 사실 WHO(2013)에 따르면, 전 세계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인구가 우울(depression), 불안(anxiety)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 때문에 인

생의 특정 시점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또한 자연환경과 대비되는 인공(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는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지속 발표되어 점차 방대하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Francis et al, 2012; Krabbendam et al, 2005; Lederbogen et al, 2011 등). 스트레스 회복 없이 소음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혼잡함과 같은 도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우울, 불안, 피로증후군(fatigue syndrome)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히고 있다(Marin et al, 2011; Taget et al, 2003). 이러한 맥락과는 반대로 도시공원, 숲과 자연 공간과 같이 자연적 요소가 가득한 자연 환경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한다(Barton et al, 2010, Thompson et al, 2011 등).

특히 지금까지 언급한 역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정신적 건강과 삶의 환경에서의 녹지 공간의 양적인 측면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거주지에서 녹지 공간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측면을 관찰한 연구도 존재한다. 즉, 이들 연구(Maas et al, 2009a, 2009b, van Dillen et al, 2012, White et al, 2012)는 녹지 공간과 거주지 간 거리의 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다. 또한 자신들의 주변에 녹지 정도/녹색 정도(greenness)를 평가하는 주관적 측정 방법을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Sugiyama et al, 2008)도 있다. 반면, 녹지에 직접 찾아가는 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다. 이들 연구의 주된 결과

는 다음과 같은데, 즉, 녹지 공간에서 주당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그리고 녹지 공간에 방문을 많이 할수록 주관적인 스트레스 정도는 더 낮으며(Grahan et al, 2003; Stigsdotter et al, 2010), 녹지로부터 더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더 낮고, 이는 곧 방문 횟수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이다(Nielsen et al, 2007).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여 본 연구는 유럽의 4개 국가를 녹지 공간에 방문하는 것과 정신적 건강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때 유럽의 4개 국가의 서로 다른 문화적, 기후적 맥락을 고려하였다. 특히 실증분석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자연환경에 대한 태도, 그리고 어린 시절 자연환경에 대한 경험이 녹지 공간 방문 횟수와 주관적인 정신 건강과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분석방법론인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 결과에 따르면, 분석을 위해 구축한 4개 공간적 범위 도시의 합동 데이터(pooled data)에서 녹지 공간에 방문하여 보내는 시간과 정신적인 건강 간에는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또한 교육 수준과 어린 시절 자연환경에 대한 경험은 영향력에 대하여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다는 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어린 시절 자연환경에 대한 경험이 적은 사람일수록 현재 녹지 공간 방문 횟수와 정신적 건강 간 더 큰 정(+)의 관계가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녹지 공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정신적 건강에 대해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점수가 더 높다는 것을 여실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

Price dispersion across countries and the heterogeneous impacts of income differences

■ Economics Letters, Yue Liu, 140(2016), pp.64-67.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논문은 국가 간 가격 분산과 소득 차이의 이질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 실증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저자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물일가의 법칙(LOP: the Law of One Price)은 여러 개방 경제 모형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교역 가능재(tradable goods)의 경우에는 국가마다 가격이 다르다. 더 나아가 일물일가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세 분석에 방대한 미시 수준의 가격 데이터를 사용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즉, Cavallo et al.(2014)는 4개의 거대 다국적 기업이 여러 국가에 공급, 판매하고 있는 동일한 수만 가지 물건 가격 정보를 수집한 바 있다. 이들은 비록 동일한 통화를 공유하고 있는 연합 내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잘 지켜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물일가의 법칙에서의 편차가 유의함을 언급하였다. Cavallo et al.(2014)의 연구가 동일한 교역 가능재의 가격에 기초하여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간

가격 분산은 재화의 질적 차이라기보다는, 국가 간 다른 마크업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여 본 연구는 가격 분산과 가격 수준의 관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록 일국 내 이러한 문제를 다룬 연구는 많으나, 다국 간 환경 내에서 이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서 Cavallo et al.(2014, 2015)에서 수집된 바 있는, 다국적 의류 기업인 자라(Zara)의 동일 제품에 대한 수천 가지 가격 정보를 이용하였다. 이에, 일물일가의 법칙에서의 편차는 고가의 상품에서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 분배비용은 가격 분산과 가격 수준 간 부(-)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이러한 부(-)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소득 차이가 중요한 잠재적 근거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더 큰 소득 차이는 일물일가의 법칙에서의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소득 차이의 영향력은 고가의 재화에서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가격이 상품의 질을 반영하고 있다면(e.g. Manova et al, 2012), 이는 소득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고품질의 재화에서 더 크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동질적인 선호를 고려하고 있는 단순 무역 모형에서 쉽게 도출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Yilmazkuday(2014,2015)의 일정한 절대 위험 기피 효용함수(CARA: The utility

function of constant absolute risk aversion)를 적용하였다. 이는 고품질 재화에 대한 낮은 수요 탄력성을 함축하고 있다. 소득이 증가하면 고가 제품의 마크업 가격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가격 분산에 미치는 소득 차이의 영향은 가격 수준과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저자가 마지막에 언급한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 간 가격 분산은 고가 제품에서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국가 간 다양한 마크업 가격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소득 차이는 더 고가의 재화에는 작은 영향을 보인다. 이는 분명히 비동질적인 선호 체계를 견지한 단순 모형에서는 쉽게 도출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다.

Early claiming of higher-earning husbands, the survivor benefit, and the incidence of poverty among recent widows

■ Jeffrey Diebold, Jeremy Moulton, John Scott. January 2016.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and Finance. pp.1-24

미국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유족연금은 저 소득자의 배우자에게 지급이 되는데 현재 수급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다. 배우자는 사망한 남편의 노령연금의 100%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노령연금은 남편의 과거 소득이력과 연금을 신청한 시기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의 노

령연금액이 높아야 유족연금액도 높아질 수 있다. 노령연금액은 연금을 신청한 시기가 늦을수록 연금액이 높아지며, 다시 말해 유족연금액도 높아진다. 실제로 노령연금 신청을 62세에서 70세 사이에서 신청하였을 때, 신청한 시기에 따라 최대 60%까지 유족연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급대상자는 62세 전이나 62세가 되면 연금을 신청하며, 그 결과 유족연금액도 낮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노령연금액을 신청하는 시기가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배우자가 과부상태에서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연금신청시기와 배우자의 빈곤 상태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이산시간위험모형(discrete-time hazard model)을 사용한다. 데이터는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에서 1993년과 2012년 사이에 남편의 소득이력이 기초가 된 유족연금을 받는 과부가 된 여성이 대상이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관계에 대해 3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연금신청시기가 빠를수록 배우자의 빈곤 확률이 높아지지만, 연금신청연기에 대한 수익은 비선형적이며 신청시기가 빠를수록 높다. 두 번째, 연금신청시기가 배우자의 빈곤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배우자가 사회보장소득에서 받는 유족연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빈곤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연금신청시기이다.

본 연구는 연금신청시기와 유족의 빈곤 확률

에 대한 관계를 개선시키는 옵션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가장 광범위한 옵션은 유족연금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연금신청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는 것이다. 두 번째, 연금수급자의 노령연금액 전액과 유족의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합해서 받는 옵션이다. 이 경우 현재 연금구조에서 받는 금액보다 클 경우에 지급받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유족연금은 유족의 주요 소득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유족에게 충분한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마무리 하고 있다.

Pension reform in a worst case scenario : public finance versus political feasibility

■ Muriel Bouchet, Luca Marchiori, Olivier Pierrard. January 2016.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and Finance. pp.1-32

인구노령화로 인해 연금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구조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유인 즉 인구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야 하는 느리고 장기적인 과정이어서 정확한 추정치를 측정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한 미래세대의 필요를 위한 현재 개혁은 현 세대에게 동의를 얻기 힘든 개혁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룩셈부르크가 흥미로운 연구를 보이고 있다. 연구에서 룩셈부르크의 연금 지출은 2013년과 2060년 사이에 GDP의 9.4%p가 증가하였으며, 이 수치는 유럽

연합국(EU)에서 가장 큰 수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격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룩셈부르크는 많은 이민과 국경을 넘나드는 노동자들이 있는 작은 경제를 가지고 있다. 이 결과 인구노령화에 대한 예상기대비용의 신뢰구간은 상당히 넓다. 그래서 많은 시나리오를 통해 개혁과 인구노령화의 효과에 대해 측정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overlapping generation(OLG)모델과 룩셈부르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구노령화의 비용과 2013년 연금개혁의 효과를 측정하고 보다 더 효과적인 개혁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체적인 개혁을 형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재정, GDP 성장률, 신생아의 복지 등과 관련된 제약된 상황아래에 평균 유권자의 복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값들의 조합을 선택한다. 또한 미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감도분석도 함께 제공한다. 분석을 위해 2012년 룩셈부르크 주요 거시 경제 기능을 모델에 보정시켰다. 그리고 기대되어지는 기술 진보, 출산율, 생존확률, 국경을 넘나드는 노동자의 흐름을 2100년까지 적용시킨다. 또한 몇몇의 입력변수를 비관적 시나리오와 낙관적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적용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개혁이 심각한 반발을 유발하고 제안된 연금개혁은 세제혜택과 유효은퇴연령을 포함하는 정책으로 구성되어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조건과 대상에 의존하는 해결책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인정되는 정책 조합을 제한하고 수치적인 시뮬레이

선 문제들을 피하기를 원하면 강력한 제약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프로그램에 기초한 연금개혁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로 최적화된 프로그램의 결과에 의해 구현되지 못한 최근 연금개혁은 재정과 중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마무리 하고 있다.